



양양소식

Vol. 28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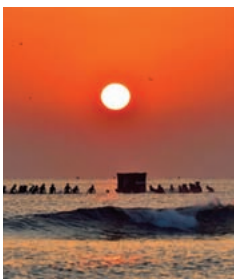
2018





양양의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도루묵(사진 - SNS 홍보기자단 전영권)

COVER STORY



죽도해변 일출과 서핑
사진 - SNS 홍보기자단 안영국



양양소식 · 283호

| 발행일 2018년 12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소식

Vol. 283

CONTENTS

희망양양

- 04 기획취재 양양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가는 곳, '꿈틀'
- 06 ISSUE & PEOPLE
대를 잇는 양양의 농부, 함승우 대표
- 08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낙산사에 얹힌 조신의 꿈

의기양양

- 10 뉴스 브리핑
10 사랑의 온도 36.5° 전하는 사람들, 당신이 희망입니다.
12 미래 양양을 준비하다.
양양 신 해양관광 메가시티 추진전략 토론
13 강현면 물갑리, 서면 수리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선정
양양비치마켓 1년, 새로운 문화를 열다
14 양양군 SNS기자단이 선정한 2018년 10대 뉴스
- 16 의정소식
제23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오감양양

- 18 SNS 기자단 소식 해맞이 명소 양양 낙산 해변
- 19 이게 최고자니 양양의 벌꿀
- 20 맛있는 양양여행
돌메기가 계락이래요! 양양 도루묵
- 22 문득, 양양 양양 오색령에 가다

열린양양

- 24 책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 이달의 신간
- 25 정보꾸러미 추천 일자리
-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양양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가는 곳, '꿈틀' 양양청소년수련관



양양지역 청소년들은 양양청소년수련관을 '꿈틀'이라고 부른다. 꿈을 키우는 곳, 꿈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의미의 '꿈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다양한 것을 배우는 꿈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꿈틀에서 재밌고 신나는 일들로 꿈을 키워온 꿈틀의 꿈 이야기를 들어본다.

꿈틀 이야기 하나 - 예술가 진로 체험 & 진로탐방

그동안 벽화를 그리고 디자인 동아리 활동을 해오던 꿈틀 청소년 동아리 회원 22명은 지난 10월 삼성 리움미술관을 탐방하고 홍대 벽화거리를 모니터링하는 등 예술가 진로체험을 했다.

또한 11월에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100여 명이 진로탐방으로 중앙대와 홍익대 문화거리를 다녀왔다. 교육봉사 동아리인 '페이퍼플레이н'·'배리어'·'플래시'를 비롯해 과학 교육봉사 동아리인 '크리에이티브', 장애인 봉사동아리 '크로체' 등 동아리 회원들이 진로탐방에 참여했다.

대부분 학교마다 대학 탐방을 진행할 때 학교를 선정해 탐방하는 것과는 달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학과를 선정하고 탐방 대학을 정한다.

올해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학과로는 '사회복지학·심리학·교육학·신문방송학·공과대학'이어서 중앙대학교를 탐방하는 것으로 정하고, 학과별 특색과 진로에 관한 설명과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질문,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양양 출신의 선배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대학생화에 대해 묻고 답하고, 고1·2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조언도 들었다. 또한 선배들이 추천하는 홍익대 문화거리로 이동하여 거리공연을 체험하면서 그동안 꿈틀 동아리 활동

꿈틀 이야기 둘 - 현남 '바담 놀이터'를 만들어 가다

양양군의 6개 읍면가운데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현남면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현남복지회관을 이용해 '현남바담놀이터'를 운영했다. 지난해부터 활동 폭을 넓혀 올해는 유아·초등 대상(9명)으로 '보드게임, 학습지도, 놀이 체험' 등, 중·고등학생

대상(16명)으로는 '서핑·봉사·동아리·청소년 축제 및 지역 축제 참가' 등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청소년 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현남면 청소년들이 열심히 활동한 결과, 2018 강원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에서 도지

사 상을 받았다. 게다가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활동으로 ‘동장’을 수여하는 등 지역의 청소년들의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변의 여러 지원이 있었다. 현남면 사무소에서는 ‘문화복지회관’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도서, 피아노, 책장 지원, 양양 서핑연합회는 서핑 프로그램과 클린비치 자원봉사를 지원해 주는 등 지역민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꿈을 키우는 바탕이 되었다.



꿈틀 이야기 셋 –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문화 캠프

수능시험이 끝나고 양양 관내 수능생들의 지친 몸과 정신을 ‘문화 · 예술로 힐링!’ 하는 청소년문화캠프가 진행된다. 80여 명의 고3 학생들이 12월에 동양예술극장을 찾아가 문화공간 체험과 함께 뮤지컬 <빨래>를 관람한다. 뮤지컬 <빨래>는 어려운 상황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사랑을 테마로 전 연

령대에서 사랑받는 유쾌하고도 가슴 따뜻한 힐링 뮤지컬인데, 평소에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시간이다. 모처럼 즐겁고 유쾌한 뮤지컬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

꿈틀 이야기 넷 – 꿈과 미래를 펼치는 청소년 활동 시설- 양양 꿈틀

양양군청소년수련관(양양 꿈틀)은 2014년 3월 개관 이후, 주말체험 · 청소년 동아리 · 청소년자치위원회 · 진로 및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바라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축제 개발 등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이어서 양양 꿈틀이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아지트가 되고 있다. <글 · 사진

ISSUE & PEOPLE 함승우 대표 농업회사법인 (주)설악산그린푸드



대를 잇는 양양의 농부, 산채(山菜)로 현대인의 건강을 사로잡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물은 산채비빔밥을 먹을 때나, 정월대보름에 먹는 정도로 알고 있다. 말려서 파는 나물이 있지만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할지 잘 모르고 손도 많이 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고들 한다. 그러니 연례행사처럼 일 년에 단 하루 정월대보름에 나물 먹는 것이 대부분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장 아쉬워하는 사람, 현대인들의 식탁에 나물을 배달하고 싶다는 사람, 매달 보름날마다 산채 나물을 먹으며 건강한 식단을 갖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산채를 컵라면보다 쉽게, 맛있게 먹는 그날을 꿈꾸는 양양의 농부 함승우 대표이다.

양양의 자연이 빛은 산채(山菜)를, 손쉽게 간편하게 똑딱!

‘똑딱 나물 · 국 시리즈’는 이름만 들어도 손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말 그대로 물만 부어서 먹는 간편식 나물 요리 상품이다. 양양에서 나는 곤드레, 시래기, 취나물을 국내 최초로 동결건조 방식으로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어디서나 2분 만에 산채요리가 되는 ‘간편식 가공품’이다. 또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곤드레 된장국 · 얼큰 시래기 된장국 · 우거지 해장국은 나물 그대로의 식감이 살아 있어서 맛있는 한 끼 식

사를 보장한다. 도시락은 준비했는데 뜨거운 국이 아쉬울 때 물만 부어서 먹으니 훨씬 든든한 점심 식사를 했다는 직장인들의 반응이 과장되지 않을 정도다.

산채요리 즉석 제품으로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손쉽게 먹을 수 상품으로 만들어 산채나물을 더 자주 쉽게 맛 볼 수 있는 건강식으로 탄생시키고 있다.



양양의 산채를 식탁에서 바로 먹기까지

그동안 산채는 말려서 건나물로 포장해 판매해 왔다. 하지만 함승우 대표는 나물을 영하 40도로 신속히 동결해 영양성분 및 식감, 향을 그대로 유지한 즉석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인증사업자부문)을 수상했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산물 생산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과 농산물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유통·체험·관광·서비스 등 3차 산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입혀 가공단계를 거쳐서 완제품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번에 함승우 대표는 바로 이 대회에서 강원도 대표로 수상하게 되었다.

서면 오색리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지역 농산물을 재배하고 판매해 온 아버지처럼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 상품으로 판매하며 가업을 잇는 2세대 농업인이다.

2008년에 대표로 취임해 지역의 그동안 해 오던 대로 양양의 대표 농산물인 버섯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양양의 산채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15년 양양군 제2그린농공단지에 산채가공 공장을 준공해 해썬(HACCP)과 전통식품품질,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의 인증을 획득해 상품 생산에 준

건강한 먹거리로 행복을 만든다.

강원도 산채 제조 전문회사로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함승우 대표를 비롯하여 17명의 직원이 산채요리를 연구개발(R&D)하고, 생산하는데 현재 NS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롯데마트(건나물류)·초록마을(친환경 건나물·약재류)과 일반 매장인 두레생협연합, 우리생협, VIC Market 등에는 나물류와 버섯 등 18종이 매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리고 명절용 버섯류의 선물세트 15종도 구비되어 있어, 양양군을 대표하는 향토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글·사진 : 편집부)



낙산사에 얹힌 조신 스님의 꿈

[삼국유사: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 관음(觀音), 정취(正趣), 조신(調信)]

삼국유사』에 전하는 「조신의 꿈」이야기

이 설화는 낙산사 관세음보살의 영험을 강조하고 불교의 무상관(無常觀)을 구상화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설화를 삼국유사에 수록한 일연 스님이 감동했듯이 훗날 많은 문학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에 직접적 영향을 주

었고, 춘원 이광수도 영향을 받아 『꿈』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으며, 또 영화와 만화로도 재창작되었다. 일연 스님은 14세에 강현면 둔전리 진전사(陳田寺)에 들어와 대웅(大雄)의 제자가 되어 수계(授戒)를 받은 스님이다.

조신 스님 짝사랑에 빠지다.

조신은 신라의 스님으로 신라 세규사(世達寺)가 가지고 있는 농장 관리인으로 파견되어 왔다.

그런데 조신스님은 고을 원님 김흔공의 딸을 홀로 연모하여 낙산사 원통보전에 여러 번 나아가 그 원님 딸과 인연이 맺어

질 수 있도록 관음보살에게 남몰래 날마다 기도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말았다. 조신은 관음보살상 앞에서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 꿈속에 빠져들었다.

조신 스님, 꿈속에서 소원 이루다

그런데 꿈에 김씨 남자가 다가서며 '저도 속으로 스님을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명령을 못 이겨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습니다. 하고는 이제 스님과 부부의 연을 맺고자 다시 왔습니다.'

조신은 관세음보살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한 것을 매우 기뻐하며 원님의 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 조신은 소원이 꿈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조신 부부는 자녀 다섯을 낳았다.

조신 생활고에 빠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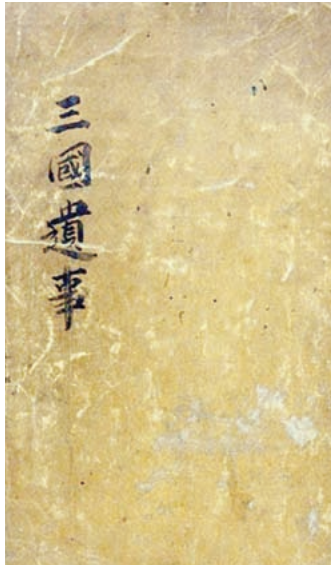
그러나 식구가 늘어났지만 농사 기술도 없어 점점 가난하여 생계를 꾸리기조차 어려웠다. 10여 년을 사방으로 돌아다녀서 옷은 찢어지고 열다섯 살 큰아이는 굶어죽기까지 하여 익령[翼嶺:양양 옛 이름] 해현[蟹峴:기고개-기정리와 사례의 사이고개]에 묻고 네 아이들을 데리고 우곡현(강릉 옥계)의 길가에 뗏집을 짓고 살았다.

늙고 병들었으며 또한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열 살 난 딸이 밥을 얻으러 남의 집 문턱에서 개에 물려 울면서 와서 부부 앞에 눕자 부모도 함께 흐느껴 울었다. 부인이 눈물을 흘치면서 갑자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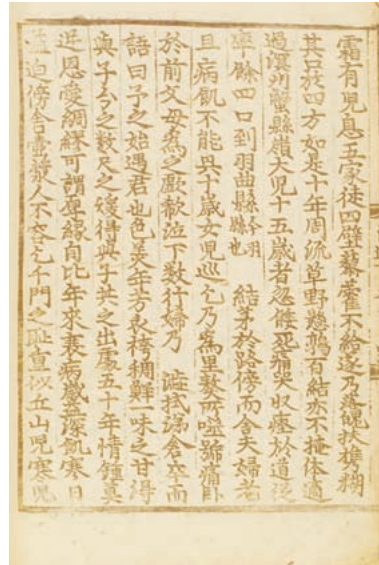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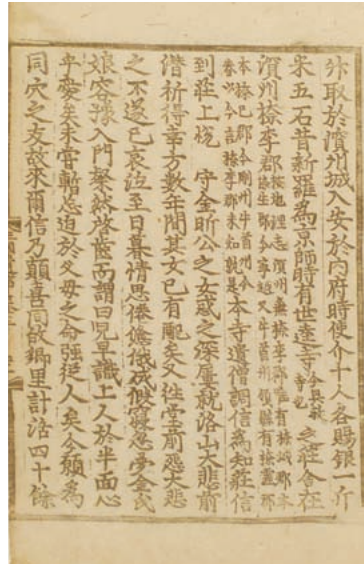
내가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다웠고 나이도 젊었습니다. 그리고 의복도 고운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웃음이 생겨도 당신과 함께 웃을 지어 입었습니다. 이렇게 살아 온지 15년, 정

은 더할 수 없이 쌓였고 사랑은 얹히고 설켜 정말 두터운 연분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늙고 병들고 날로 더욱 깊어가고 굶주림과 추위는 날로 더욱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한 칸의 결방, 한 병의 간장의 구결도 사람들은 용납해 주지 않았고 수많은 집 문전에서 수치는 무겁기 산더미 같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지쳐있어도 그것 하나 면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느 겨를에 가정의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젊은 얼굴에 예쁜 웃음은 풀잎 위의 이슬 같고 굳고도 향기롭던 그 기약도 한갓 바람에 날리는 버들가지 같구려! 당신에게는 내가 있어서 짐이 되고 나는 당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곰곰히 지난날의 환락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번뇌로 오르는 계단이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삼국유사 표지



조신의꿈



낙산사 꿈이 이루어지는길



꿈이 이루어지는 길

가족이 나누어 살기로 하다.

우리가 모여 있다가 함께 굶어죽기 보다는 차라리 식구들을 나누어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순경(順境)일 때는 붙들고 역경(逆境)일 때는 버리는 것이 차마 하지 못할 짓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가고 머무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오? 헤어지고 만남에는 운명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기서 서로 헤어지도록 합시다.

조신은 아내의 제의를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아이들을 각각

조신 꿈 깨어 정토사를 세우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 수염과 머리털이 하얗게 세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히 낮이 나간 듯 인간세상에의 뜻이라곤 전혀 없었다. 이미 인간의 그 고된 세상에 대해 염증을 느껴짐이 마치 실제 백년의 신고(辛苦)에 시달린 것 같았다. 탐욕의 마음은 얼음이 녹듯이 없어져 버렸다. 이에 관음보살의 모습을 대하기가 부끄

를 나눠 갈라서려 할 때 아내가 다시 말했다.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세요.”

서로 잡았던 손을 막 놓고 돌아서서 길을 나서려 할 때 조신은 꿈에서 깨어났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자신은 관음보살상 앞에 엎드려 있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쇠잔한 등불은 어스름한 불 그림자를 너울거리며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러워 참회를 금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해현으로 가서 꿈에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보니 그곳에서 돌미륵이 나왔다. 깨곳이 씻어서 낙산사에 봉안하고 경주로 돌아가 장원 관리 임무를 벗었다. 그리고 사재를 들여서 정토사를 세우고 부지런히 선업을 닦았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1



2



3



4



4

5



5

6



7



8



9



10



사랑의 온도 36.5°를 전하는 사람들, 당신이 희망입니다.

따뜻한 손길로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 세상살이가 참 각박하다고들 하지만 자신의 시간을 뒤로하고 짬을 내서 봉사하는 이들, 양양 곳곳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을 전하는 당신이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당신들이 있어서 양양의 2018년이 더욱 따뜻했습니다.

1. 양양자원봉사센터 / 제1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활동
2. 대한적십자사 양양지구협의회 / 어르신 겨울빨간준비
3. 어머니포순이봉사단 /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
4. 한국전력공사 양양지사/ 양양시내 환경 정화 활동
5.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 남대천 생태공원 정화활동

6. ㈜한수원 양양 양수발전소/ 재가봉사
7. 2018평창동계올림픽 서포터즈
8. 새마을운동중앙회 양양지부 / 사랑의 김장봉사
9. 종합사회복지관 /이□ 미용정기봉사
10.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 / 과수농가 열매숙기 지원활동

※각종 단체와 기관, 주민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 및 성금하신 사례가 많이 있으나 지면상 모두 실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C 미래 양양을 준비하다. 양양 신 해양관광 메가시티 추진전략 토론회 및 방향제시

타당한 논리 개발을 통해 2020년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목표로 하다



우리군은 지난 15일 여운포리 일원에 계획 중인 양양 신 해양관광 메가시티 추진전략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국 내외 여건 변화 분석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신항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광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양양 신항만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하여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 환동해권 해양여건변화에 따른 우리군의 미래성장방안, 신 해양관광 메가시티 추진방안,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요예측 등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워크숍에 참여한 송운강 교수(강원대학교)는 양양 신 해양관광 메가시티 추진방안에 대한 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크루즈(22만 톤급×1선석, 15만 톤급×1선석), 잡화부두(3만 DWT×2선석), 컨테이너부두(2천TEU급×1선석), 항만시설용 부지(73만m2)에 대한 계획이 가능하다고 개발수요를 예측하

여 제시하였다.

또한 김인철 교수(동서대)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에서 항만, 도시,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개발수요의 타당성 확보와 환경적인 대응방안, 강원권 항만의 기능별 특화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것이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우리군은 지정학적으로 양양군은 북방향로를 개척하기 위한 중요한 지역으로서 지난 '99년~'02년에도 국가적으로 타당성이 검토된 바 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고속도로, 공항, 철도 등 대형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교통 요충지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판단, 양양항만계획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양양을 위해 준비하는 계획이고 명분과 타당한 논리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양양 신 해양관광 메가시티 추진 전략을 2020년 제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Tel. 033-670-2101

C 강현면 물갑리, 서면 수리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선정

물갑리 생들기름 가공공장, 수리 다목적회관 조성으로 마을 주민 복지 향상 계획

2018년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로 양양군 강현면 물갑리와 서면 수리 등 2개 마을이 선정됐다.

우리군은 변화하는 농촌의 여건과 사회 트렌드를 반영, 내실 있는 마을사업이 되도록 추진마을에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멘토링을 진행한 결과 2개 마을이 동시에 선정되었다. 이들 마을은 지역 소득증대와 문화복지 향상 등으로 마을당 도비 3억, 군비 2억 등 총 5억을 지원받아 관련법령에 따라 마을발전 위한 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된다.

추진 2년차인 강현면 물갑리(대표 김규준)는 마을주민 체험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표고버섯 및 들깨 공동재배 사업과 생들기름 가공 공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3년차인 서

면 수리(대표 김학수)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과 기업형 새농촌을 연계하여 마을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다목적회관을 조성하여 치어리딩, 사물놀이 등 주민동아리 활동과 마을 공동 급식소, 주민돌봄센터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마을 노인문화 복지 으뜸마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군은 물갑리와 수리가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로 경쟁력을 갖추어나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담당 Tel. 033-670-2338

C 양양비치마켓 1년, 새로운 문화를 열다

지역인 가치 소통의 문화장터, 둘째 주말엔 양양비치마켓

매월 둘째주 주말에 열리는 양양비치마켓이 지역셀러들의 참여가 확대되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및 지역인 가치 소통의 장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열고 있다.

지난해 11월 양양 물치항에서 처음 열린 양양비치마켓은 8월부터는 낙산사와 설악해수욕장이 있는 후진항으로 자리를 옮겨 1년동안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소규모로 시작한 양양비치마켓은 횡수를 거듭할수록 참가하는 셀러들이 늘어나 이번 11월에 열린 15번째 비치마켓에는 양평 문호리 셀러 51개 지역셀러 25개팀 등 모두 76개의 팀이 참여하였다.

철철이 나오는 엄두름, 도루묵 등 청정 지역 농특산물은 매회 큰 인기를 끌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로서 기대를 모았으며,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을 통해 개발된 상품과 지역공예가 및 미술가들의 참여로 양양의 특색을 담은 새로운 문화공간을 지역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불꽃놀이, 패션쇼, 버스킹 공연 등 회마다 특색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우리군은 1년 전 문을 연 비치마켓이 횡수를 거듭하면서 지

역의 새로운 문화장터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기에 앞으로 양양비치마켓이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강현면사무소 총무담당 Tel. 033-670-2660



양양군 SNS기자단이 선정한 2018년 10대 뉴스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성공적으로 치뤘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성황리에 치러냈다. 2019년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및 2020년 강원도민체전도 파이팅~!



민선 7기 출범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플랫폼, 양양'

민선6기에 다져진 성장 응집력을 모아 민선 7기 양양시대를 본격 개막하였습니다. 5대 역점시책과 4HOPE전략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플랫폼, 양양'이 되겠습니다.



양양의 여름 야시장을

잠 못드는 무더운 여름으로 문전성시를 이룬 양양의 밤이 깊어갑니다. 시원하지 않은 양양의 맛도 계속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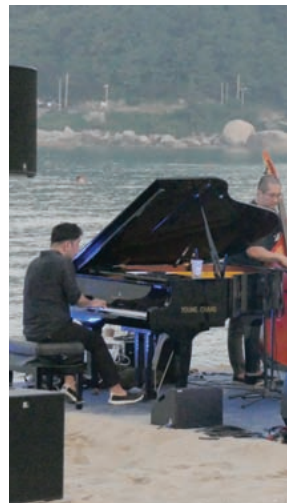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1월 28일 2018평창동계 올림픽 성화봉송이 낙산항에서 시작하여 38명의 주자가 양양지역 46Km 돌아 양양군의회에 도착하여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을 밝혔습니다.



97세 이옥남 할머니의 30년 일기가 책으로 발간되다

소쩍새가 울고 꽃이 피고 달이 뜨는 소박한 삶이 풍경처럼 그려진 이옥남 할머니의 일기가 북편딩을 통해 <아흔 일곱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책으로 태어났습니다.



한여름밤 '그랑블루페스티벌'

서핑의 성지 죽도에서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별2018' 뜨거운 햇볕, 화를 만끽할 수 있는

2018년 한해를 돌아보며 양양군 SNS 기자단이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큰 사건 사고나 재난이 없었던 2018년 한해의 이슈를 되돌아보며, 2019년 황금돼지띠
기해년을 준비해 보자.



밤 맛있는 즐기다

밤, 야시장 시범운영으
데요~! 소소하지만 시
맛있는 야시장. 2019년



아파트 신축공사로 활기를 띠는 양양

2018년도 양양읍내에 아파트들이 신축되고
있는데요~!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부터 앞으
로 입주를 기다리는 아파트까지 활기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송이도 풍년, 축제도 풍년 '2018양양송이축제'

최근 10년 사이 가장 좋은 송이 수매실적을
올리며, 송이풍작과 쾌청한 날씨, 징검다리
연휴 등 삼박자가 어우러져 구름인파가 몰린
2018양양송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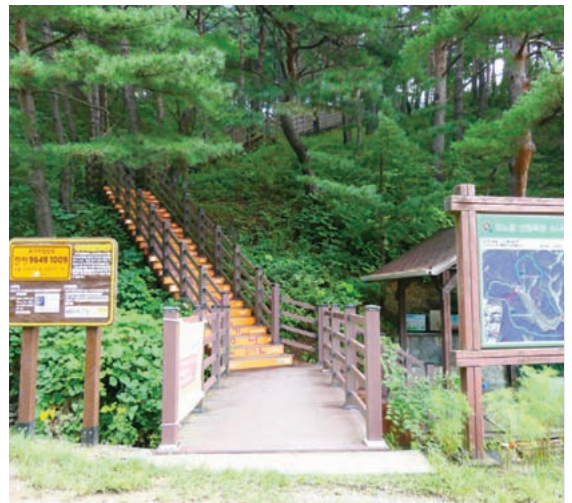
밤의 축제 스티벌 2018'

펼쳐진 영화와 서핑이
축제 '그랑블로페스티
시원한 물, 짜릿한 영
해변서핑 대표축제.



찍으면 인생 샷 황화코스모스단지

남대천 둔치 조성된 황화코스모스단지는 카
메라 셔터만 누르면 인생 샷이 되는 코스로
인기폭발! 2019년에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양양모노골 산림욕장 인기

봄, 여름, 가을 양양 내곡리 모노골 산림욕장
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건강계단은 물론
주차장까지 확충된 모노골 걸으면서 건강챙
기세요~!



제23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지난 10월 30일부터 2일간 제23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여 위원장에 김우섭 의원, 간사에 김택철 의원을 선출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의원간담회 개최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집행부와 주민을 대상으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29일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군 대외정책과의 '양양말테마파크 사업제안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하며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화상경마장 반대측(설악권 번영회장협의회, 양양군기독교연합회, 불교연합회, 양양군초중고학부모연합회)와 찬성측(양양군 이장협의회장단 및 각 면별 이장협의회장)과 각각 간담회를 실시하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 고제철 의장은 화상경마장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군 세무회계과의 2019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한 5건의 안건 중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건물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조건하에 승인했다.



간담회 일자	소관부서	간담회 안건		의견
2018.10.29	대외정책과	양양말테마파크 사업제안에 따른 조치계획		재검토
2018.11.5	세무회계과	2019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참전기념탑 건립 부지매입	이견없음
			양양군 공설묘원 주변 사유지 매입	이견없음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건물 신축사업	조건부 승인
			지경관광지 편입토지매각	이견없음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사업	이견없음
2018.11.15	복지과	공립(이습)어린이집 신규위탁 선정 계획(안)		이견없음

양양군의회는 2018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군민의 곁에서 군민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운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21건 등 안건 35건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21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고제철 의장은 제8대 양양군의회가 개원한 첫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를 맞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호 소통·화합·민심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성숙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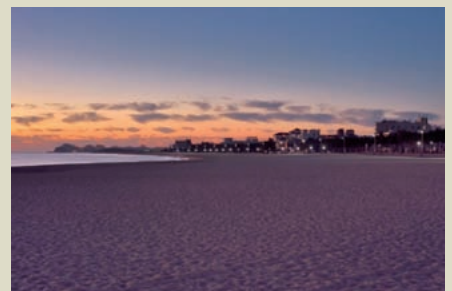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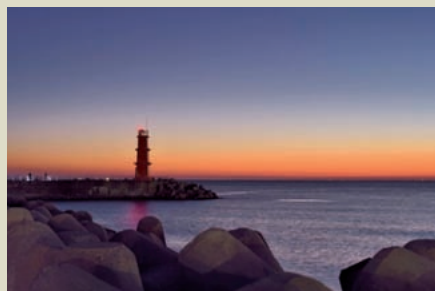
양양군의회는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차례에 걸쳐 25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정책에 대한 방향을 중간 점검하고, 소관 부서별 업무추진상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세밀히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행정에 대해 평가하고, 진단한 문제점과 대안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사용되었는지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12월 13일부터 2일간 실시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7건의 조례안 등 총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Tel.033-670-2801

SNS기자가 알리는 양양 소식



해맞이 명소 양양 낙산 해변

해오름의고장 양양은 바다, 산, 강 어느 곳에서나 멋진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 장소마다 특유의 매력을 지닌 바다 일출이 장관이다.

옛날에는 몇 번을 망설이며 오던 곳이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 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아침 해맞이의 감동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새해를 앞두고 새다짐이 필요하다면 일출명소 낙산해변을 방문하여보자.

4Km에 이르는 넓고 긴 백사장을 가진 낙산해변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수평선을 바라볼 수 있어서 특별한 일출

포인트가 필요없다. 군에서 주관하는 해맞이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한 낙산해변은 1월1일의 시작과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연등달기 등의 새해소망을 기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관음성지 낙산사에서 1월1일 0시에 울려 퍼지는 타종소리를 들을 수 있고, 천년세월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 낙산사 의상대 일출은 그 자체로도 경이롭다. 동해신이 모셔진 동해신묘 또한 낙산해변에 위치해 있는데 관음성지와 동해신의 기운이 서린 낙산해변에서 새해 소망을 기원해 보자.

글 · 사진 : SNS 홍보기자단 안영국

더 많은 소식은 양양군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likeyyang> 와 양양군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기(이게) 최고자니! 양양의 벌꿀



고대 그리스 신들의 식량, 벌꿀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의 식량이라 했고, 로마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여겼다고 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벌꿀은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비위를 보강하고 아픈 것을 멎게 하며 독을 풀 뿐 아니라, 온갖 약을 소화시키고 입이 험 것을 치료하며 귀와

눈을 밝게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꿀 속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 있어, 피로 회복에 좋으며, 노화를 방지하며 정력을 돋우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인체의 생리 기능에 전혀 해가 없는 감미료로서도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잡화꿀부터 프로폴리스까지 양양의 자연이 주는 선물

일벌은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청정양양의 수많은 수목들과 야생의 밀원에서 꿀을 모아 들인다. 꽃이 사랑의 대가로 곤충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꿀은 벌이 어떤 꽃샘에서 꿀을 따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밤꿀은 짙은 갈색에서 검은 빛을 띄며, 다른 꿀과는 달리 약간 씹싸름한 맛이 있다. 아카시아꿀은 색이 맑고 맛과 향이 부드러우며, 잡화꿀은 이른 봄부터 늦가

을까지 다양한 수목들과 야생화의 밀원에서 얻은 꿀로 각종 요리에 설탕대신 사용해도 좋다.

또한 설악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피나무꿀은 맛과 향이 진하며 한번 맛보면 계속 찾게된다고 한다. 게다가 유해산소를 억제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폴리스는 겨울철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준다.

청정양양에서 만나는 ‘양양의 벌꿀’ 양양물에서 구매하세요

해풍과 설악산의 바람 그리고 미세먼지 없는 청정 환경에서 자라나는 꽃에서 얻게되는 양양의 벌꿀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벌꿀은 하루 2~3회 숟가락으로 그대로 먹는 것이 좋으며, 기호에 따라 인삼차 레몬차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요리 시 설탕대신으로 사용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양양물에서는 청정환경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꽃에서 얻은 벌꿀부터 프로폴리스, 로얄제리, 산삼배양근담근꿀까지 종류별, 취향별로 판매하고 있다. 올 겨울은 양양물에서 구입한 양양벌꿀로 우리가족 목은 피로를 날려보자.



Tip 양양물: www.yangyangmall.co.kr (문의 : 033-670-2704)



돌메기가 게락 이래요!

300년 전, 진상품 고초를 벗어나게 해준 양양의 도루묵

“양양은 그나마 큰 고을이니 이해를 하오나, 간성에서까지 토산물로 공물을 바치라 하는 것은 부당하오니 헤아려 주시옵고, 그 폐단을 시정하여 주시기 간청 드리옵니다”. 지역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는 문제로 이 같은 상서 한 장이 조정에 올라왔다. 월별에 따라 각 고을별로 국가나 왕실에서 지정하거나 필요한 지방 특산물을 그 지방의 수령이 책임지고 공납품으로 진상하여야 하는데, 간성 사람들이 도루묵 공납 문제로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강원도와 함경도의 어부들이 왕실에 도루묵을 공납품으로 진상하는데, 그 지역들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많이 잡히는 양양을 제외하고 간성은 마땅치가 않으니, 도루묵 진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성을 비롯한 고성 사람들의 하소연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탄원서 내용이다.





오도독 오도독 돌메기 알의 추억

이를 보아 당시, 양양에서는 도루묵을 왕실의 진상품으로 공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때마침 제철을 맞은 도루묵이 양양말로 게락이다. 간혹, 밋밋한 살맛이 뭐가 맛있냐며 구박도 하고, 꽤나 오래 끓인 듯해도 여전히 익지 않은 듯 진득진득 하게 터져 나오는 암도루묵 알을 냄비 한 귀퉁이로 밀어내기도 한다. 공납품에서 해제된 300년 이후의 역사에서 맛보는 도루묵은 그때처럼 별미가 아닌 듯싶게 취급받아도, 여전히 지역 사람들에게는 진상품 이상의 대우를 받는 생선이다.

“그때는 지금처럼 냉장시설도 없지, 팔 때도 마땅치가 않지..., 돌메기가 나기는 얼마나 많이 났는데, 마당 앞 눈 속에다 파묻어 놓고 꺼내 먹었다니까”. 지금은 믿기지 않은 양양 도루묵에 얹힌 일화를 들려 주는 남애향 한 선장의 말이다. 때에 따라 다르긴 해도 간성 사람들이 조정에 올린 탄원서가 애당치 만은 않았던 것 같다. 도루묵도 도루묵이지만 당시 도루묵 철이면 그물코마다 잔뜩 붙어 딱딱해진 암컷의 알을 한 솔 삶아서 간식처럼 질정질정 씹기도 했다. 입속에서 오도독 오도독 나는 소리에 짹짹하면서 구수한 알즙이 터져 나오는 게 별미로 등꽃길의 포구 아이들은 라면봉지에 담아 이웃 마을 아이들한테 삶은 밤이나 삶은 고구마하고 바꿔먹기도 했던 추억도 있다.

300년 전, 일화 속 양양 도루묵의 일출 근거지

옛말에 ‘도루묵은 겨드랑이에 넣었다 빼도 먹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살이 연하고 부드럽다는 말로 이정도면 양양의 포구마다 떠오르는 청명한 아침빛으로도 구워먹을 만 할 것 같다. 마침 도루묵이 날 때면, 물결 능선에 덧칠 한 듯 벽차게 달려와 안기는 일출의 의미가 절로 큰 일 년 중 마지막 달이이다. 물치항은 빨갛고 하얀 색깔의 송이버섯 모양을 한 등대가 이채롭고, 낙산해수욕장은 툭 터진 시원함이 으뜸이고, 수산항은 먼 바다로 연결된 듯 쪽 뺨어나간 방파제의 배경이 매력적이다. 천년 노송이 절벽 상두에 우뚝 박힌 하조대 역시 양양을 대표하는 품격의 일출 명소이다. 실상은 겨드랑이 보다 못한 체온의 아침빛이지만 300년 전, 양양의 저 바다에서 진상됐을 양양의 도루묵을 연상할 근거지의 일출지이다.

다행히 양양 사람들은 간성 사람들과 다르게 도루묵 공납에 고초를 겪지 않았다 하니, 그 기록의 일화가 놀랍기도 하여, 굵은 소금 훌훌 뿌려 짹짹하게 구워 먹든, 짹짹하게 찌개로 먹든, 고소하고 담백하게 튀김으로 먹든 양양의 도루묵을 새삼 되새겨 볼 만하게 그때처럼 값진 양양의 제철 특미가 아닐까 싶다.

〈글·사진 : 강원도외식저널 대표 황영철〉

오색령에 가다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고.

‘그 노래’ 때문에 늦가을이면, 흰 눈 덮인 겨울이면, 무작정 찾아가곤 했던 곳. 고작해야 단풍이 지는 늦가을에 너울너울 펼쳐진 산자락을 쳐다보거나, 흰 눈으로 덮인 산자락과 매서운 설악의 겨울바람에 휘청이며 서 있다가 왔던 그 곳. 한계령 휴게소이다.

한계령은 원래 이름이 ‘오색령’(五色嶺)으로 내설악과 남설악을 잇는 44번 국도의 고개이다.

본래 이름 대신 ‘한계령’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건 일제강점기 때인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도 ‘한계령’이라 불리다가, 잘못된 고개 이름을 바로잡기 위해 2016년 ‘백두대간 오색령’이라는 표지석을 세우고 ‘오색령’으로 이름을 바로 잡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때 그 추억은 한계령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한계령 휴게소

오색령, 설악의 비경을 담다.

오색령은 양양 사람들이 인제나 서울로 갈 때 넘던 험한 산길이었는데요, 이 고개를 넘나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함께 동고동락한 고개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산적들이 들끓어 해가 지면 이 고개를 넘지 말라는 뜻으로 고개의 길목인 양양군 서면 오가리의 길 옆 바위에 금표(禁標)라고 새겨두었다고 한다. 지금은 오색령 정상에서부터 흐르는 물줄기를 가로지르는 다리인 금표교(禁標橋)가 지난날의 흔적을 가늠하게 한다.

험한 산길을 돌고 돌아다니던 시절을 지나서 1966년에 오색령에 도로가 났는데 일명 '오색관광도로 개통'이라 했다. 양양의 관광과 관광 재원의 개발 시대를 열기 위해 도로를 개통한 것이다. 이후로는 오색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기 위해, 설악의 설화를 보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었으니 설악의 운무(雲霧)가 펼쳐지는 장관을 만나는 행운을 이곳 오색령에서 만날 수 있었다.

가을 단풍과 겨울 雪花, 그리고 휴게소

매년 10□11월이면 오색령은 단풍으로 절정을 이룬다. 그리고 설악 단풍의 끝자락에 이르면, 곧 12월의 설화(雪花)로 이어진다. 가을엔 오색단풍이 천하의 절경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겨울엔 눈(雪)으로 세상을 덮는다.

늦가을이나 초겨울 그 스산하던 시간에 떠오르던 이곳, 한계령 휴게소는 오색령의 장엄함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찾아들곤 했다. 건축가 김수근(1937□1986)이 설계해 1982년 한국 건축가 협회 대상을 수상할만큼 이색적이고 멋진 자태여서, 마치 스위스에 온 듯한 기분을 준다고들 했다. 구불구불 산자락을 휘감아 돌다가 멈춘 고갯마루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휴게소, 늦은 가을날의 정취를 온몸에 받은 듯 말없이 고요히 선 휴게소는 선뜻 들어서지

도 못 할 만큼 산자락에 폭 묻힌 듯 했다. '휴게소'라는

이름보다는 '산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곳, 노래는 오지마라 오지말라고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늦가을이면 꼭 들러야 하는 것처럼 찾아갔는지는 모를 일이다.

고개를 내려서면 양양의 푸른 바다가 펼쳐질 것이고, 고개에 올라 서면 먼 길을 달려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데, 고갯마루에서 한없이 회한에 젖었던 것은 설악의 단풍이거나 설화 때문이 아니라 그 집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올해 다시 그 집에 갔다. 11월 늦가을에.

한참을 서서 단풍이 지나가고 마른 가지만 남은 나무들을 보며 또 한 해가 스스럼없이 지나감을 느꼈다. 그리고 오색령 굽이 굽이를 돌아 내려와 오색 약수터 앞 산채나물 집 뜨끈한 방에 앉아 더덕산채정식을 먹었다. 든든했다.

오색을 보고 오색령을 넘고 오색 약수로 지은 밥을 먹으니 이 가을도 이렇게 지나가는가보다.

〈글·사진 : 편집부〉

책 이야기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세계”

언더독(Underdog), 스포츠에서 우승이나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스포츠에서는 가끔 언더독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언더독의 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언더독의 예로 볼 수 있는 다윗에서부터 당시 지배적인 미술 사조를 거부하고 새로운 지평을 연 인상파 화가들, 난독증에도 불구하고 저명한 변호사가 된 데이빗 보이스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언더독이 등장합니다. 저자는 이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남다른 통찰을 통해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강함과 약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무언가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한 필체로 사례를 이야기하고 분석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분석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통념에 따라 살 것인가, 자신만의 길을 찾을 것인가?’ 우리 사회에는 많은 통념들, 정답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많이 가져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좋은 전공을 선택해 좋은 대학을 가야하고, 적절한 시기에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정답들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정답과는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반드시 더 나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좋은 것보다 자신만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삶의 정답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책 속 밑줄 긋기

『다윗과 골리앗은 보통사람들이 거인을 만났을 때 어떤 일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 말콤 글래드웰 지음 / 21세기북스 / 2014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습관의 힘

찰스 두히그 지음, 갤리온, 2012

그릿

앤절라 더크워스 지음, 비즈니스북스, 2016

신경 끄기의 기술

마크 맨슨 지음, 갤리온, 2017

이 벌어지는지에 관한 책이다. 여기에서 ‘거인’이란 군대와 힘센 전자에서부터 장애, 불운, 그리고 압제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강력한 적을 뜻한다. 이 책의 각 장은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평범하든 비범하든,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이에 대응해야 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규칙에 따라 싸워야 할까, 내 직감을 따라야 할까? 굴하지 않고 싸워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 당한 만큼 반격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p. 20)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골든 아워

이국종 지음/ 흐름출판 / 2018

17년간 외상외과 의사로서 맞닥뜨린 냉혹한 현실, 고뇌와 사색,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록해 왔다. 이 책은 외상외과에 발을 내디딘 2002년에서 2018년 상반기까지의 각종 진료기록과 수술기록 등을 바탕으로 저자의 기억들을 모은 기록으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사선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환자들과 의사들의 치열한 이야기입니다. 사고 현장과 의료 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절절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고심했고, 한 단어 한 문장 심혈을 기울여 써 내려간 이 책을 통해 현장을 겪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입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왓지 이상한 동물도감

누마가사 와타리 지음 / 미라엔 / 2018

동물이 인간에게 길들여진 역사, 인간에게 발견되어 멸종하거나 멸종 위기 종이 되어 버린 역사를 짚어 보기도 하고, 그 동물이 왜 인간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지, 혹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문화적 배경과 함께 살펴보는 것도 합니다. 동물은 때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또 때로 인간이 오랫동안 품어 온 꿈을 이룰 연구 대상이 되어 주거나,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실마리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동물에게, 동물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을 들여다보는 동안 동물의 존재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노인요양원 성산사랑마을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
양양수산	5명	생산직	08:00~17:00	시급 7,530원 이상
(주)대정지엠피 골든비치골프리조트	1명	조경관리 및 코스관리	08:00~17:00 (협의)	연2,200만원 이상
(주)대진환경개발	1명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소지자)	09:00~18:00 (주5일)	연3,500만원
어업회사법인 설수산	1명	배송 및 창고관리	07:00~17:00 (주6일)	월180만원 (협의)
코레일낙산연수원	1명	하우스키퍼	09:00~18:00	연2,200만원
	1명	룸메이드	09:00~18:00	연2,150만원
(주)새서울레저 골든비치리조트	1명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소지자)	08:30~17:30	연2,200만원이상(협의)
	3명	전기·설비 영선원	교대근무	연2,200만원이상(협의)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주)골든에스엔씨	14명	객실룸메이드	08:30~18:00 (주6일)	월210만원
	1명	청소원 (로비청소)	시간 협의 (월5회휴무)	월210만원
양양지역자활센터	1	조리사	09:00~18:00 (주5일)	월185만원
낙산비치호텔	1	주방보조원	05:00~14:00 (주5일)	급여 상담후
효담노인복지센터	1	사회복지사	09:00~18:00 (주5일)	월 157.3만원
실로암재가 장기요양센터	1	재가요양보호사	수급자별 상이	시급 1만원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8년 11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산불
주요 발생 원인**

69%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쓰레기
태우기 일입니다**

31%
기타

38%
임산자실화

소각 31%

꼭 지켜주세요!

**안전 소각
행동요령 2가지**

1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일체의 소각행위 금지
(산림인접지역: 산림으로 부터 100m이내)

2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은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 허가 받아 실시
(마을단위 공동소각)

기억하세요!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 0%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고,
해충류는 11%가 방제되지만,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는 89%나 죽습니다

병해충
방제효과
없음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9년 1월
- 신청기간 : 2018년 4분기분(2018.12.17.~2019.1.31.),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혹은 우편접수
- 신청대상 : 강원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지원조건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원칙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자를 원칙으로 지원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문 의 : 경제에너지과 ☎033)670-2978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지방교육세가 1장의 고지서에 함께 고지됩니다.

- 과세표준(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

배기량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
cc당 세액	80원	140원	200원

※ 영업용 및 그 밖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이하 소형차의 세율은 고지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인별로 차종, 연식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세액은 문의(☎033-670-210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동차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 과세기간(제2기분) : 7월 ~ 12월
- 납부기간 : 2018. 12. 16 ~ 12. 31.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수납 시스템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현금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033-670-2107

국유지 불법사용 신고제도 강화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국에 소재한 국유농지에 대해 불법 전대 등 불법 행위 전수 조사를 2019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나 대부계약상의 대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이다.
- 캄코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재산에 대해 즉시 대부계약 해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불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며, 향후 국유재산 대부입찰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주변에 국유재산을 불법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알고 있거나 발견하면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www.kamco.or.kr, 1899-0096)」로 신고하면 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 아쿠아리움 할인! 양양군 자매도시(서울 송파구) 할인혜택 안내

- 대 상 : 양양군민 본인 + 동반 3인
- 할인기간 : '18. 3. 1. ~ '19. 2. 28.
- 할인방법 : 거주지(양양군) 확인 가능한 신분증 제시
- 우 대 울

구분			정상가	성수기		비수기	
				우대가	할인율	우대가	할인율
어드벤처	주간 (09:30~)	어른	55,000	33,000	40%	27,500	50%
		청소년	48,000	28,800		24,000	
		어린이	44,000	26,400		22,000	
	야간 (16:00~)	어른	44,000	26,400		22,000	
		청소년	38,000	22,800		19,000	
		어린이	34,000	20,400		17,000	
아쿠아리움			어른	31,000	20%	24,800	20%
			청소년	31,000		24,800	
			어린이	27,000		21,600	

※ 성수기: 하절기 2018년 7~8월 / 동절기 2018년 12월~2019년 2월

교육 받고 면허증 갱신했다우~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네~

체크해 주세요 !!
적성검사 기간
5년 → 3년으로 단축

교육 받으시려면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먼저 해 주세요 !!
Q "도로교통공단" 검색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의무화

운전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강원지역본부

☎ 033-250-9152~8

<http://www.koroad.or.kr> (예약필수, 2시간)

춘천운전면허시험장 (매주 화 13:00)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매주 수 14:00)

강릉운전면허시험장 (매주 수 13:00)

태백운전면허시험장 (둘째 화 13: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민선7년

소중한 정치후원금

정치가후원

은혜의 땅 양양에서는 소중한 정치후원금을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됩니다.

정치후원금센터 give.go.kr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최대 50만원까지 한도 설정가능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소중한 성금은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됩니다.

집중모금기간 : 2018.12.1~2019.1.31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자세한 정보는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가상계좌, 대한적십자 홈페이지, QR코드, 편의점,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129 복지부

도움이 필요한 복지위기가구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복지포털 129 또는 스마트폰 앱

'복지 위기가구'란?

- 실직 후 폐업 등에 따른 생계곤란 가구
-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 폭행,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지원내용 ■ 복지상담,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건강관리, 돌봄, 후원 등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도 첫! 사랑의열매 시작한다!

어리니까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마음의 활동까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요.

당신,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ARS모금 060-700-0577 기부문의 033-244-1662
계좌입금 농협 203-01-448497 (예금주: 강원도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소중한 성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대한민국 대표 법정 모금 배분 전문기관입니다.

2019 양양 해맞이 축제

기해년 새해 첫소망! 양양에서 이루다!

2018. 12. 31(월) ~ 2019. 1. 1(화)

주 행사장 낙산 해변, 낙산사, 동해신묘